☞4면에서 이어짐

신년사를 통해 〈성경〉 창세기편의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말씀이 인간 중심적인 현대 산업사회의 모순을 야기한 메시지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 역시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불교가 환경문제를 외면한 것은, 수행을 통해 늘 깨어있으면서 중생의 고통에 귀기울이라는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환경운동은 참회와 성찰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회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 참회와 성찰을

진옥스님=사찰과 신도가 많아도 사회봉사자가 항상 부족한 게 오늘의 절집입니다. 이를 볼 때, 조계종 환경위원회나 불교환경연대의 활동도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해인사 골프장 문제나 지리산 댐 문제에 부딪치면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긴 해도 한계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명망가 중심의 환경운동은 허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상기해야 해요. 한국에 수만명의 스님이 있지만 발우공양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발우공양의 정신만 제대로 홍보해도 연간 8조원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종교적 권위와 명령으론 부족합니다. 먼저 광범위한 씨앗을 뿌려 환경운동의 토양을 만들어야 해요.

현고스님=옛날의 절 살림살이는 생태적 삶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운동하는 스님들 역시 이제는 사회인들과 정서적 보조를 함께 해야 합니다. 매스컴을 의식한 소영웅주의적 발상은 위험해요. 순수한 불교환경운동을 훼손하고 정치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거든요. 불교환경단체는 종단으로부터도 철저한 NGO(비정부기구)가 되어야 해요.



현고 스님

"옛날 절 살림살이 생태적 삶 그 자체 꼭 계승해야 할 일"



진옥 스님

"사찰과 불자 합심 환경바라밀 실천 '같이 사는길' 찾자"



이병철 대표

"자본주의가 낳은 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이병인 교수

"'환경苦' 시달리는 중생구제 처방전 '환경신행의 확산'"

이병철=새로 출범한 불교환경연대는 시민환경단체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 환경운동의 시행착오와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실상사 도법스님의 경우 이 시대 불교의 역할을 불교귀농운동을 통해 잘 보여주셨어요. 가톨릭농민회의 한 동료가 사찰수련회에 참석해 '발우공양만 제대로 되어도 모든 환경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불교가 지닌 유·무형의 자산을 사회화하는 방편으로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지구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이 때, 이를 구제할 환경보살의 출현은 절실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신과 외부의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는 수행자적인 관점에서 예토를 정토로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나의 삶과 세상을 정화하는 각성을 통해 불국토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병인=사찰환경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간직한, 과거·현재·미래 삼세의 자연문화유산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찰은 대형 건축불사 위주의 반환경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계획적인 불사와 기록부재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찰환경문제가 생겨도 해당 사찰만 발등의 불이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석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도와준 이웃 종교인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아울러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옥스님=중국이 침공한 티베트의 경우, 자연자원은 물론 수행 및 문화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운동은 이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수행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찰 수행환경의 훼손은 인간 정신의 숲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재가를 떠나 지역과 사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런 전통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자=환경보살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교내부의 반생태적인 행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환경 마인드의 부재, 대형불사, 스님들의 참여부족 등을 개선해 절집 본연의 모습을 회복, 정신정화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시민환경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대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는데요.

이병철=천년도량이자 새로운 생명회복의 근거지로서 사찰은 교육과 각성의 장이 되어야 해요. 이웃 종교인들과 시민들을 초청,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우공양을 재해석하거나 환경서원, 환경계율 등을 제정해 전 불자의 밥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옥스님=불교환경연대는 우선 불교 환경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철저한 비폭력과 자비의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의 폭에 있어서는 국가의 환경정책 모두를 문제 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론가와 함께 실천가 그리고 재정력이 담보되어야겠죠. 재정문제는 기부금 형태보다는 회원확보를 통한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대중성 확보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힘을 얻어내는 길임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이병인=사찰 소유 토지는 국립공원 면적의 12%에 달합니다. 이런 자원을 제대로 보전하고, 발우공양 해우소 등 친생태적 생활양식을 지켜나간다면 사찰은 진정한 환경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산중의 사찰은 1600여년간 산주(山主)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자연지역인 백두대간에는 불교전래이래 수많은 사찰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산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때문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각 지역의 사찰이 환경보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고스님=환경운동 실천단위의 기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각과 생태적 생활속에서 심신의 건강과 보람을 느낄 때 효과가 있어요. 나아가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가 최대단위가 되어 실천하는 것이 거대조직에 의한 활동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생활속의 실천을 위해서는 '환경 바라밀'과 같은 실천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백두대간 네트워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지역과 사찰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죠.

이병철=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의 '비폭력 평화운동'에서 보듯이 운동이 곧 수행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수행적 운동론입니다. 환경보살의 근본 서원 역시 생태적 각성을 통한 자기수행과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환경 바라밀'과 같은 실천덕목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현고스님=우리 종단의 환경운동체제는 사찰단위로 신도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소속된 지역사회의 환경의제 설정과 실천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정구역별, 교구별 불교환경연대를 구축해 본사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워크숍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교파중심적 활동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환경단체나 이웃종교 환경단체와도 상호연대해야 불교 생명사상의 보편화, 사회화가 가능합니다.

대형 건축불사 지양

이병인=국립공원지역의 대부분은 반경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도시화된 지역으로 둘러쌓인 녹색섬(Green Island)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최후의 자연지역이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백두대간의 자연 및 역사, 문화에 대한 탐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시범사찰을 운영하면서 정보공유와 유대강화에 나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600여년간 이어 온 '산주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 이 시대의 환경고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사찰의 경내지는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루이니까요.

진옥스님=남해 씨프린스호 사건을 겪은 뒤 지자체를 설득하면서 얻은 경험이지만, 환경운동은 같이 사는 길을 찾는 작업임을 상대방에게 일깨울 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의 질서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설명하면 상대방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 환경운동은 '설득이 가장 큰 압박'이란 정신으로 언어 폭력조차 없는 평화로운 활동이어야 겠습니다.

사회자=장시간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교 환경운동의 내실있는 도약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 환경운동 略史

▲1991년 3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
▲92년 2월 29일 공해추방불교인모임(공추불) 창립
▲12월 15일 공추불 계간지 〈공해없는 세상〉 발간
▲93년 8월 '맑고향기롭게' 운동 발의
▲95년 3월 17일 경불련 환경모임 창립
▲6월 5일 30개 불교단체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 개최
▲9월 15일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환경보호회 창립대회
▲96년 5월 15일 불교환경교육원, 첫 환경수행 지침서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 발간
▲7월 대구불교산악회 녹색환경감시단 발족
▲10월 14일 불교자원봉사련 제1회 불교여성 환경세미나 개최
▲11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사찰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대회' 개최, 사찰환경보존위원회 발족
▲97년 7월 20일 경주 청소년 환경감시단 발족
▲9월 4~6일 불교환경교육원,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개최
▲11월 26일 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대책 결과보고 요청서' 발송
▲98년 3월 28일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개교
▲99년 9월 11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
▲2000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해인골프장 '공원사업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기각 결정
▲4월 2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 '직지사앞 음식점 건축불허' 판결.
▲11월 30일 13개 불교단체, 종단 및 사찰에 '환경훼손 참회', 대형 불사 자제 건의
▲6월 10~12일 대불청, 제19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환경5계(물 아끼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모피 옷 안입기, 사후 화장 등) 발표
▲6월 29일 '지리산살리기 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창립
▲8월 30일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창립
▲10월 23일~11월 18일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 1300리 도보순례
▲2001년 2월 1일 경불련 어머니 환경위원회 발족
▲2월 5일 조계종 총무원, 〈사찰환경 침해 사례집〉 발간
▲3월 14일 조계종 환경위원회 발족
▲3월 26일 건설교통부, 지리산댐 사실상 백지화
▲4월 1~30일 대불청 부산지구 '낙동강따라 구도 도보순례'
▲9월 6일 불교환경연대 창립
▲9월 26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와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 출범

환경운동도 값진 수행방편 발우공양 정신 오늘에 잇자

법보종찰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보살계 수계와 영가천도 및 가사불사 회향

화엄경에 이르기를 「계(戒)는 보리심을 개발하고 지혜롭게 배움은 부지런히 공덕을 닦는 터전이니 계와 학에 항상 수순하여 행함은 일체 여래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다.」하였고 고당대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이라도 보살계를 받아 계행이 깨끗한 이는 필경에는 도과를 증득할 것이다.」하였습니다.

본 해인사에서는 연례대로 법보신앙의 결정체인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 및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오니 이웃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고려팔만대장경이 이 사바세계에 오래 머물러 부처님의 법음이 영원하기를 발원하고, 불보살님의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여 민족이 화합하고 국운이 융창하여 불자님의 직장과 가정에 복락을 발원하며,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옵기를 발원하나이다.

더불어 2001년 5월 7일에 입재한 가사 불사를 회향하오니 동참하시어 무루 복락을 누리소서.

▶보살계 동참금 : 30,000원
▶영가동참금 : 영가 1위당 10,000원

접수안내

▶접수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종무소
종무소 : ☎(055)931-1001~2 ☎원주실 : (055)931-1009
천도재 사무실 : ☎(055)931-8771~2 팩 스 :(055)931-1010
▶온라인 접수 : 농 협 843174-51-003929(예금주 :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327(예금주 : 해인사)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시 전화 확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도림법전 합장
주지 수봉세민

법회일정안내

◉일 시 : 2001년 10월30일~10월31일(음력 9월14일~15일)
■10월 30일(음9.14) 입제 : 오후 4시
보살계법문 : 오후 7시
영가천도대령관욕 : 오후 9시
■10월 31일(음9.15) 영가시식 : 오전 4시
괘불봉안 : 오전 7시
수계식 : 오전 8시
가사불사 회향 : 오전 11시
법문 : 가산 지관 큰스님
보살계법문 : 유나 원융스님, 강주 지오스님
증명 : 혜암 성관 대종사 전계아사리 : 도림 법전 대종사
갈마아사리 : 수봉 세민 대화상 교수아사리 : 일장 혜능 대화상

법보종찰 해인사 1029일 천도재 여섯번째 49재 안내
■일 시 : 2001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영가법문 : 승산 행원 큰스님